

2016 서울연극제 공식선정작 심사평

올해 서울연극제가 37회를 맞았습니다. 역동적 변화는 있으나 일관성은 부족한 한국사회에서 연극제의 연혁이 37회에 이르렀다니 만감이 교차합니다. 그러나 그 감회를 언급하기엔 연극제의 풍경이 우울하다는 이야기로 서두를 꺼내야 할 것 같습니다. 예산의 삭감, 아르코 극장 사용 불가 방침과 그 여파로 인한 공연 공간의 분산, 또 대관료의 증가. 덕분에 충분한 제작비를 참여급단에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준 참가 극단과 집행부에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올해 서울연극제 공식선정작은 모두 8편이었고, 심사는 저를 비롯해서 연출가 채승훈, 비평가 심재민, 배우 김태훈, 극작가 김명화가 참여했습니다. 심사과정에서 가장 큰 고충은 작품들의 형식과 지향점이 판이하게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걸출한 작품도 없었지만, 참여한 작품들의 경향이 상이하да보니 우열의 비교가 힘들었습니다. 기존의 연극미학과 실험적 시도, 안정된 극작술과 거친 연극이 공존했습니다. 어쩌면 이런 뒤섞임은 하나의 잣대로 수렴하기 힘든 우리 시대의 모습을 반영하는 것이며, 한국 연극이 그만큼 다양해졌다는 징표로도 읽힙니다. 서울연극협회 이야길 들어보니 소속된 극단 수가 297개로 십여 년 전보다 두 배 이상 증가했다는군요. 그 양적 증가와 다양성을 생각해볼 때, 앞으로의 서울연극제 역시 현재의 단순한 구도보다는 그 다양성을 포용할 수 있게끔 세분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제안해봅니다.

심사과정은 지난했습니다. 처음엔 형식적 완성도만 놓고 심사를 할 것인지 고민했지만 상이한 다양성이 현재 한국 연극의 풍경이라면 그 모든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술적 완성도만이 아니라 시의성, 새로운 형식을 함께 고려했고 최종적으로 <햄릿 아버지><장판><잔치>를 주목했습니다.

공동창작으로 만든 백수광부의 <햄릿아버지>는 셰익스피어의 <햄릿>에 기대 우리 시대를 스케치하듯 조감한 작품입니다. 계몽적 상투성이나 감상주의에 빠지지 않은 냉정한 시선으로 악몽 같은 현실을 유감없이 드러낸 거친 연극이었습니다. 때로 정제되지 않은 표현과 에피소드의 과잉은 관객들에게 당혹감을 주었고 과격한 표현들은 객석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과연 그렇게까지 거칠어야 했는지, 여전히 의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관객들이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공연 내내 관객들은 예민하게 반응했으며 무대의 악몽이 자신들의 현실이고, 우리들의 현실이 곧 악몽이라는 사실에 전율했습니다. 극장은 그 불편함 속에 싱싱하게 살아 있었습니다.

대학로극장의 <장판>은 극작술의 참신함이 두드러진 작품입니다. 부조리하면서도 그로테스크한 상황과 언어는 현재 한국 사회의 모습과 만나는 지점이 있었고, 새로운 술을 새 부대에 담아야 하듯 과거와 달라진 한국 사회를 관습적이지 않은 참신한 언어로 빚어냈다는 인상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연출과 무대 등 다른 요소들이 희곡의 언어에 맞는 제작 방식을 아직 찾지 못했고 희곡 역시 전반부가 준 기대감과 달리 평이하게 마무리되어 아쉬웠습니다. 현실을 비튼 작가의 방식이 철학이라기보다는 기법이나 재주에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를 주기도 했습니다.

반면 한양레파토리의 <잔치>는 오랜만에 만난 견고한 작품이었습니다. 점점 연령대가 낮아지면서 배우의 순발력이나 재주가 승한 연극계의 구도에서 모쳐

럼 존재감을 드러내는 중견 배우들의 앙상블을 경험할 수 있었고, 연출과 무대 모두 자연스럽게 어우러졌습니다. 그러나 모든 인물들을 부각하려고 노력하다 보니 정작 작품의 구심점이 될 만한 사건이 부각되지 못했고 몇 년 전에 완성된 대본이어서 그런지 형식이 구태의연하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외에 젊은 연극인들이 만들었지만 에너지 있게 세련된 무대를 만들었던 바바서커스의 <연옥>, 사도세자의 이야기를 현대적 감각으로 풀어낸 <일물>도 중요한 작품으로 거론되었습니다. 대규모의 출연진이 등장했던 <다목리미상번지>, 현실에 대해 진정성 있게 발언한 <내 아이에게>, 병든 가족의 이야길 다룬 <소풍>의 노력에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모든 작품들의 장단점을 토론하다 보니 심사는 세 시간을 넘어설 정도로 길었습니다. 심사 후 늦은 저녁을 먹으면서 우리들은 민간 연극이 점차 위축되는 상황에서의 한국 연극의 고민과 분노에 대해,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연극이 꾸어야 할 원대한 꿈에 대해 이야기 했습니다. 한 심사위원이 프랑스의 작가 빅토르 위고의 말을 인용하여 연극이 용광로여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용광로는 모든 것을 삼켜버립니다. 끓어오르는 뜨거운 열기 속에 모든 형체를 박탈하고 해체하고 녹입니다. 그래야 재탄생할 수 있습니다. 현실의 비루함을 견디며 이번 연극제에서 최선을 다해준 여러분들께 수고의 인사를 드립니다. 더 분노하고 더 정제하고 더 파괴하고 더 완성해 주십시오. 연극이라는 용광로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고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그 용광로에 여러분의 분노와 열정, 고독과 냉소, 존재와 사회,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있던 연극 자체까지 모두 던져주십시오.

심사위원 일동 정동환, 채승훈, 심재민, 김명화, 김태훈